

■ 연재 / 축산경영강좌 ②

농업및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김 정 주
건대 농경과 교수

1.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

과거에는 농업이라 하면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 만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구조가 복잡해 짐에 따라 농업및 축산업도 다른 산업과 연관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자금비료에 의존하던 작물재배가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는 어렵게 되자 비료·농약의 제조 공급과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농가 부산물을 이용하여 한두마리의 가축을 키우던 축산이 대부분의 사료를 구입하여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축산업은 사료산업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처럼 농업및 축산분야가 종래에 생각해오던 것과는 달리 비료, 농약, 사료, 분야는 물론 농축산물의 저장, 수송, 가공, 판매등과 같은 부문과 연결되지 않은 농업및 축산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히 농민은 농용자재의 구매자인

동시에 농축산물의 판매자 기능을 모두 갖게 되었다. 결국 오늘의 농업은 농업과 공업 그리고 상업이 혼합된 성격을 가졌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공업이나 상업은 고도의 경제이론이 적용되는 기업적 경영이어야 하므로 오늘의 농업을 표현하는 등식을 말한다면 오늘의 농업=농업(AGRICULTURE)+기업적 성격(BUSINESS)=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애그리 비즈니스는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기업적 성격을 뜻하는 BUSINESS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애그리비즈니스라는 용어는 1955년 미국 하바드 대학의 존·데이비스 교수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애그리 비즈니스에 관한 개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30년대에 미국의 농업이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2·3차 산업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를 바탕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미국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그리비즈니스에 관한 말은 10여년 전 부터 사용되었으나 용어의 적절한 번역이 없어서 영어발음 그대로 쓰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원문에 충실한 나머지 「농기업」이라고 번역하여 쓰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기업이 운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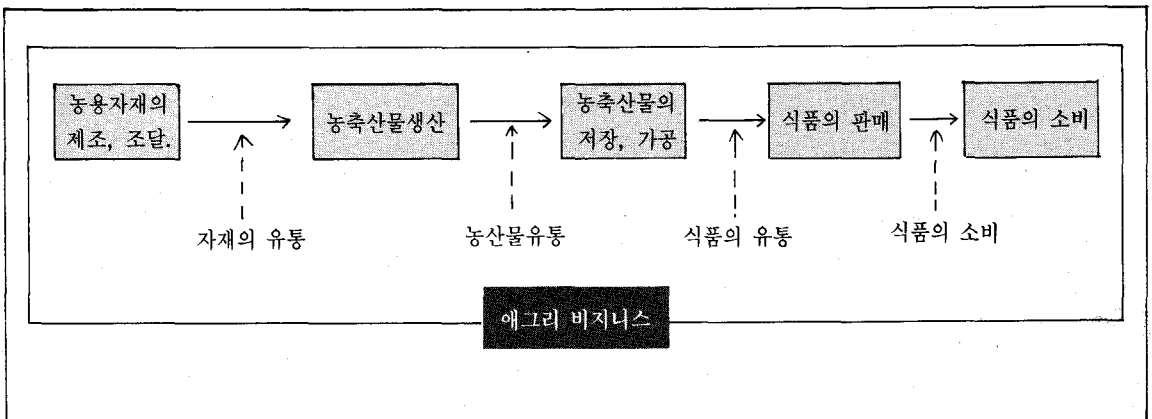
는 대단위 농사일 처럼 들려 본래의 의미가 흐려지므로 「농업관련산업」이라는 긴 용어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은 이 애그리비즈니스 개념이기는 하나 생산에만 주력했던 전통적 농업 또는 축산업의 개념으로 부터 탈피하여 이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농업및 축산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농업의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농업의 생산및 유통체계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2. 농업및 축산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앞에서 말한 애그리비즈니스의 각부문은 개별 독립된 경영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양돈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사료공장, 동물약품회사, 종돈장, 양돈장 도축장, 정육점, 육제품 판매소등의 독립된 경영체가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개약진을 하고 있다. 이 처럼 애그리비즈니스가 자방방임적으로 되어 있는 경영체계 아래에서는 상호기능을 연결시켜 주는 매체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최종으로 소비하는 제품, 예를들면 소시지나 햄 또는

〈그림-1〉 애그리 비즈니스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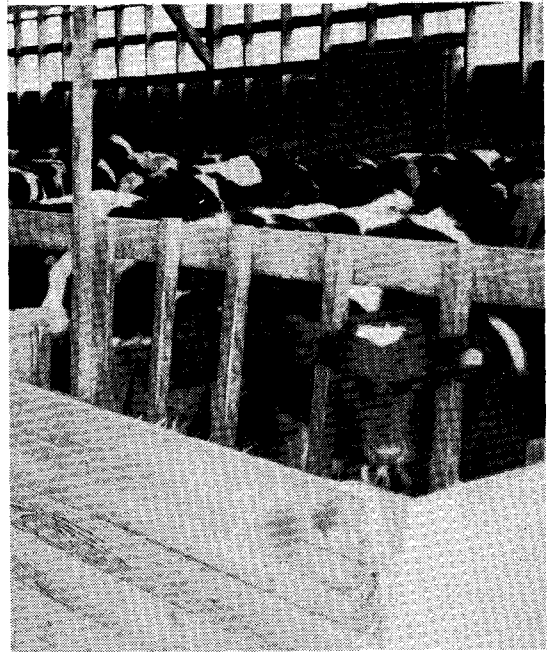


정육의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제품의 질도 향상될 수 없어서 애그리비지니스에 종사하는 경영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유리할것이 없다. 따라서 애그리비지니스의 각부분을 고도로 전문화 시키되 이들 각 부분간의 기능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경영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업및 축산업의 경제통합이다. 일명 계열화라고도 번역된 경제통합은 애그리비지니스의 다단계 경영활동을 단일 관리하에 묶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윤추구의 중심점을 단일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최종상품의 제조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농업및 축산업의 혁신적인 경영체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은 통합된 정도, 통합주체, 통합방식에 따라 다음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통합구성요소의 각 단계중 일부만이 통합된 부분통합과 각 단계가 모두 통합된 완전통합으로 구분 된다. 또한 통합주체가 기업체인 기업통합과 협동조합인 협동통합이 있다. 또, 통합구성요소, 예를 들면 종돈장, 사료공장등을 통합주체가 직접소유 하고 있는 소유통합과 통합구성 요소중 사육시설과 사육 기능은 생산주체(농민)가 소유하거나 분담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통합주체가 전담하고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통합이 있다. 한편, 규모확대를 위하여 수개의 경영체가 단순히 합쳐지는 수평통합과 소유 또는 계약통합으로 구분되는 수직통합으로도 분류하고 있어 매우 복잡해 보인다. 실제로 맥주회사와 농민간의 계약에 의한 맥주맥재배는 부분통합, 기업통합, 계약통합, 수직통합에 해당된다.

그런데 농업의 경제통합은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업 보다는 축산업 부문에 훨씬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경종농업에 비하여 축산업이 공업적 생산에 가까운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및 축산업에 경제통합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많다. 우선 한 나라의 전 농업이 몇개의 경영체에 의하여 통제 되므로 의사결정에 소요



된 시간이 단축되어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적시에 강구할 수 있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체제에 의해서 생산물의 품질을 균질화하여 상품성을 높일수 있고 최종상품을 기준한 제조 원가를 인하시킬 수 있다. 최종생산물의 입장에서 보면 각 단계별, 생산물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중간생산물이 되어 판매비용등 비용발생 요인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 소시지·햄의 경우를 보면 통합경영체제에서는 사료, 약품, 비육돈, 지육등이 모두 소시지·햄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절세(節稅)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경영체제에 의하여 절약될 수 있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체계적인 연구조사 결과는 없으나 최종상품을 기준하여 브로일러의 경우는 30%정도라고 업계에는 알려져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및 축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산업에 대한 도전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

반협정(GATT)의 경상수지 적자국(赤字國)에 대한 예외조항(BOP)을 졸업한 이상 농축산물 수입을 강력히 저지할 구실을 잃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도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농업및 축산업이 살아남은 길은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것인데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가격면에서나 품질면에서 외국산 제품에 손색없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농축산물제품의 제조 경비를 인하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기술수준은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고 할 만큼 발전되어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 하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비용절감 가능성은 현재의 생산체제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한 경제통합경영방식이 농업및 축산업의 생존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등 농업선진국에서 이 생산및 유통체제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적·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여건에 맞추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경제통합경영방식의 경영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또하나의 숙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의 경영주체 즉 통합주체(IN-TEGRATOR)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이 통합주체가 되고 농민은 그 통합구성요소 중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주체(PRODUCER)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농민이 소작제도에 의하여 가진자로부터 수탈당해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및 축산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미궁을 헤매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이다.

여기에서 거론된 대안이 협동조합이 통합주체가 되는 경제통합이다.

3.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통합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그 본질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안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협동조합 구성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규모 생산자 소비자들이 조직한 자주적이고도 자조(自助)적인 경제단체요, 상부상조의 인적(人的)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농민이 주인이며 주인인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협동조합이 우리가 바라는 협동조합의 위상인 것이다.

이제 협동조합이 통합주체가 된다면 농민은 통합주체인 동시에 생산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우려했던 가진자의 수탈로부터 벗어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경제통합의 주체가 된다는 발상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능중 판매, 구매, 가공사업을 보다 강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즉 농민조합원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용자재의 조달에서 부터 농축산물의 수송, 가공, 저장판매는 모두 협동조합이 맡아서 하겠다는 협동조합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피동적으로 실시해 오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수준으로는 안되고 모든 사업이 협동조합의 절대적인 책임하에 수행되는 운영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하나가 협동조합에 이를 위한 전문 경영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닐것이다. 우선 실현 가능한 협동조합에서 통합체제의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다. 주로 양돈, 비육, 낙농 양계분야가 경제통합대상이 될 것이다.

공업이나 상업은 고도의 경제이론이 적용되는 기업적 경영이어야 하므로 오늘의 농업을 표현하는 등식을 말한다면 **오늘의 농업=농업(AGRICULTURE)+기업적 성격(BUSINESS)=에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에그리 비즈니스**는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기업적 성격을 뜻하는 **BUSINESS**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을 것.

지금까지의 경제통합 적용 논리를 가지고도 막상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타치는 어려움은 많다. 농협으로 부터 축협이 분리된 이후 같은 조합원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증폭된 서어비스로 접근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두 협동조합간의 협동도 원만하지 못하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어 이러한 축산물의 경제통합을 농협에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단위마다 조직된 축협이 군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렵게 보인다.

여기에서 기업이 주도한 축산업의 경제통합을 또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4. 기업주도에 의한 경제통합

협동조합이 축산업의 경제통합주체가 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앞에서 우려했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사실보다는 왜곡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농민 편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기업과 농민이 특정한 축종에 대한 사육을 계약될 때 협동조합이나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를 위한 입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기업과 농민의 계약과정에서 농민은 무조건 피해볼 것이라는 막연한 관념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부 실시해 오고 있는 각종 계약 재배나 계약사육의 경우 당사자 보다는 주변의 관찰자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의식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실제로 양돈계약사육의 경우 두당 1만원이상의 사육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력 없이 부부노동력으로 300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연간 1000만원이상이 된다는 것은 쉽게 계산이 된다. 여기에서 비용발생요인이라고는 돈사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이므로 농가 소득으로서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독자적인 경영을 못하고 돈육가격의 진폭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수취하므로 돈육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하락했을 경우의 위험 회피로 상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로 축산업의 경제통합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면 양돈의 경우 1989년말 현재 선진축산(주)등 11개 기업체의 주도아래 174개 농가가 참여하여 15만두의 비육돈이 생산되었고 브로일러의 경우는 천호인티그레이션등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 추세라는 업계의 보고가 있다. 머지않아 낙농·육우 분야에서도 경제통합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